

■ 2017년도[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가 공모] 지원 심의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가 공모
- 회의일시 : 2017. 3. 27. (월) 18:00~20: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1

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에 지원 신청한 작가(팀)는 총 71명(팀)이었다.

총 2차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우선 1차 심의회는 전체 신청 작가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 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회의였다. 심의위원들은 작가(단체)들이 제출한 지원신청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였고, 심의위원들 간 논의를 통하여 최종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신청작가들은 국제 미술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부터 중견, 그리고 젊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심회는 기 공지된 심의기준에 의거, 예술적 수월성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지나치게 예술성만 주창할 수도, 그렇다고 너무 행사용 조형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작가(단체)들이 예술적 수월성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작품들 중에는 기 발표된 작품들과 유사하거나, 혹은, 작품 자체는 훌륭하나 평창동계올림픽과의 연관성이 낮아 2차 심의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1차 심의회에서는 2차 인터뷰 심의대상자 4명을 선정하였다.

2차 심의회에서는 4명의 후보 작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지원신청서에 표현된 것 이상의, 제안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터뷰 후에는 심의위원들 간 토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예술적 수월성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를 대중들에게도 잘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된 두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문주작가와 이용백 작가이다. 두 작가의 작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평창문화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작가분들과 단체, 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가공모 심의위원 일동